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박은정*

|| 차례 ||

1. 머리말
2.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공간의 두 가지 존재 방식과 의미
 - 1) 남성 권력의 배치와 가족의 갈등
 - 2) 여성연대를 통한 공감과 가족의 화해
3.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 1) 여성공간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
 - 2) 취미공의 헤테로토피아적 성격
4. 맺음말

【국문초록】

<취미삼선록>은 제목에서부터 인물과 더불어 취미궁이라는 공간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취미삼선록>에는 차별적 성격의 두 가지 공간이 존재한다. 무양공주의 시대, 무양궁, 허씨의 침소, 여읍공주의 누각 등은 남성 권력이 주도적으로 배치된 공간이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규범과 폭력에 순응하고, 가족 갈등은 재생되고 심화된다. 반면 취미궁은 여성의 주체적 의지로 형성한 여성공간이다. 이곳에서 공주들은 어머니 고통의 화상을 그리고, 이 일은 가족 화해의 단서가 된다. 나아가 취미궁은 가족 갈등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부녀 갈등은 광무제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직접적인 치유에 이르게 된다. 반면 남편들의 구체적인 반성에 이르지 못한 부부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지만, 소통과 공감의 여성연대 공간을 통해 또 다른 방식의 치유를 얻어내고 있다. 이처럼 취미궁이 치유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취미궁의 헤테로토피아적 성격과 관련이 깊다. 취미궁은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완전히 벗어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난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외부 공간의 전횡적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반쯤 열리고 반쯤 닫힌 공간의 특수성은 경제 넘기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취미궁은 안팎 공간의 권력을 재배치하고 인물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동적 공간이 된다. <취미삼선록>이 이끌어내고 있는 가족과 여성, 공동체에 대한 선진적인 의식은 취미궁이 서사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취미삼선록>, 여성공간, 취미궁, 권력, 여성연대, 가족, 갈등, 화해, 치유, 소통, 공감, 헤테로토피아.

1. 머리말

<취미삼선록(翠微三仙錄)>은 18세기에 창작,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18세기에 필사된 <옥원재합기연>의 표지 안쪽에 동시대 유통된 다른 소설의 목록과 함께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¹⁾ 5종의 이본이 한글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세책본으로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느 정도 널리 읽힌 작품으로 보인다.²⁾ 후한 광무제와 광후, 음후의 이야기를 다룬 <옥환기봉>과의 연관성 하에 창작되었음이 밝혀졌고³⁾, <취미삼선록>의

1)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온양 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 통권 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187 참조.

2) 현재까지 확인된 <취미삼선록> 이본은 모두 한글 필사본이며, 천리대본, 한중연본, 연세대본, 서강대본 그리고 양승민본으로 총 5종이다. 이 중 서강대본은 세책본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다. 소인호,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집, 우리어문학회, 2009, pp.136-139 참조. 지금까지 <취미삼선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중연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소인호는 5종의 이본 검토 결과 천리대본이 선본이라고 밝혔다. 필자 역시 이러한 논의에 동의하며, 본 논문에서도 천리대본을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천리대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취미삼선록>의 인용은 면수만 표시한다.

3)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제6

독자들 또한 이 작품을 <옥환기봉>과 관련지어 읽었음을 알 수 있다.⁴⁾

<취미삼선록>의 ‘취미(翠微)’는 ‘취미궁(翠微宮)’을 이르는 것이고 ‘삼선(三仙)’은 괘후 소생의 세 딸들을 선녀에 빗대어 일컫는 것이다. <취미삼선록>은 글자 글대로 취미궁과 괘후 소생 삼공주에 대한 이야기이다. 거의 대부분의 고전소설 제목은 인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간혹 그 인물이 행하는 사건이 언급되기도 한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누가 무엇을 했다’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취미삼선록>은 인물인 ‘삼선’과 더불어 공간인 ‘취미궁’이 인물과 대등하게 제명을 구성하고 있다. ‘누구’와 더불어 ‘어디’의 문제가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취미삼선록>은 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형성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학에서 공간⁵⁾은 단순히 사건 전개에 배경으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사회와 분리된 공간은 없는데 문학 속 공간은 사회적 의미를 생성해내는 중요한 기제이다. ‘공간은 모든 형태의 공동체적 삶에서 근본적인 것이며, 모든 권력의 행사에서도 근본적인 것이다.’⁶⁾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균질적인, 중성적 실재가 아니다. 공간은 항상 영토적 분절을 통해 특정한 배치를 이루며, 권력 효과가 발생하

호, 국문학회, 태학사, 2001, pp.161-166 참조.

4) 양승민본 <취미궁성산록>의 필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칙 설화 옥환기봉의 괘후 소생 공주 중 습형태 설화라 칙 설화 유육이라 신선록이라 부디부디 앗겨앗겨 보으라’ 이를 통해 이 작품과 <옥환기봉>의 연관성을 필사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인호, 『<취미궁성산록>의 이본적 특성과 축약 양상』,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p.504 참조.

5)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차이 및 관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6) 미셸 푸코는 폴 레비나우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간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간은 모든 형태의 공동체적 삶에서 근본적인 것이며, 모든 권력의 행사에서도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정병언, 『저항적 여성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마사 노먼의 Getting Out』, 『현대영미드라마』 20,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07, p.134.

는 힘의 장으로 나타난다.⁷⁾

고전소설 속 여성들은 규방 이외의 특별한 공간을 갖지 못한다. 특히 혼인한 여성들에게 시댁이나 규방으로 대표되는 여성공간은 대개 가부장적 질서로 대변되는 남성 권력에 순응하는 삶을 위해 기능한다. 그런데 <취미삼선록>의 세 공주는 남편들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공간이 바로 취미궁이다. 이러한 행위와 공간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 및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취미삼선록>에서 취미궁이라는 여성공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취미삼선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장효현⁸⁾의 해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소인호⁹⁾가 여성의식의 성취 및 한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전성운¹⁰⁾은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를 살피는 과정에서 <취미삼선록>의 몽유세계가 작품에 구현되는 양상 및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후 이승복¹¹⁾은 <옥환기봉>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작품의 구조와 의미 및 소설사적 의의를 검토하였고, 임치균¹²⁾ 역시 <옥환기봉>에서 파생된 <한조삼성기봉>과의 연관성 속에서 작품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구선정¹³⁾은 석사논문을 통해 주제 및 인물의 성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7) 그런 의미에서 공간의 역사에 대한 물음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사회학 또는 정치학적 주제에 가깝다. 최진석, 『근대의 공간, 혹은 공간의 근대』,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도들』, 그린비, 2007, pp.236-237 참조.

8) 장효현, 『취미삼선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9) 소인호, 『<취미삼선록>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10)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 -<현몽쌍의록>·<현몽쌍룡기>·<몽옥쌍봉연록>·<쌍천기봉>·<취미삼선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 한국고소설학회, 1999.

11) 이승복, 앞의 논문.

12)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 : <옥환기봉>·<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0집, 월인, 2006. 12.

13)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를 펼쳤다. 박은정¹⁴⁾은 <옥환기봉>, <도앵행>,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봉> 네 작품을 포괄적 범주의 연작으로 규정하고, 네 작품의 연작적 특징과 개별 작품론을 전개하였다. 최근 소인호는 새로 발굴된 양승민본을 소개하고¹⁵⁾, 이본 전체를 검토한 결과 천리대본이 선본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¹⁶⁾ 작품 전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취미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구선정¹⁷⁾은 <구운몽>의 취미궁과, 한길연¹⁸⁾은 <화정선행록>의 탈속적 자기공간 성의궁과 비교하여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취미궁의 의미를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취미삼선록>과 <옥환기봉>의 연관성,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의식 등이 밝혀졌으며, 그 주제 구현에 취미궁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도 부각되었다. 그러나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옥환기봉>과의 연관성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논의들이 전체 서사 중 삼공주의 부부 갈등에 주목하고 <취미삼선록>의 전체가 되는 <옥환기봉>과의 연관성을 소홀히 다룬 결과, 그녀들의 어머니 곽후와 관련한 의미를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취미궁을 논의하는 논문 역시 다른 공간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취미궁의 독자적인 의미 파악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에서는 우선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이 권력의 재배치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해에 도달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14)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15) 소인호(2008), 앞의 논문.

16) 소인호(2009), 앞의 논문.

17) 구선정, 『'종남산 취미궁'의 체험 양상과 그 의미 -<구운몽>과 <취미삼선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18) 한길연,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여성공간인 취미궁이 그곳을 원하는 여성들과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취미궁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의의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취미궁이 서사 전개 및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바에 주목하면서 <취미삼선록>의 소설사적 위상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공간의 두 가지 존재 방식과 의미

<취미삼선록>에는 두 가지 성격의 공간이 공존한다. 하나는 혼인으로 인해 형성된 관계 속에서 여성이 주로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성이 주체적 의지를 갖고 머무르고자 하는 공간이다. 차별적 성격의 두 공간을 대비함으로써 <취미삼선록>에서 여성과 관련한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어떤 의미를 획득해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간이 그려내는 사건과 정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취미삼선록>의 줄거리를 주요 사건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¹⁹⁾

- ① 무양공주는 폐위된 광후 소생으로 광무제의 장녀이다. 광무제는 바둑을 잘 두는 양송을 사위로 삼으려 하고, 양송은 조강지처 허씨가 있음을 밝히지 않는다. 광무제가 딸의 혼사를 가볍게 처리한 데 대해 음후는

19) <취미삼선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옥환기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광무제 유수와 광씨는 초년 고생을 함께한 부부이다. 광씨는 조강지처로서 갖은 고생을 하고 시모를 정성껏 섬긴다. 어느 날 유수가 옥환의 인연인 음씨를 들인다. 훗날 유수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광후가 먼저 아들을 낳는다. 그러나 광무제의 애정이 음후에게 편벽되어 광후는 투기와 모해를 하게 된다. 정실 광후는 부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결국 폐위되고 광후의 아들도 폐태자된다. 음후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음후의 아들이 태자에 봉해진다. 무양, 관도, 여음공주는 광후 소생의 딸들이고, 날양, 연양공주는 음후 소생의 딸들이다.

몹시 진노한다.

- ② 혼인 후 허씨의 출거 사실을 알게 된 무양공주는 광무제에게 허씨의 복위를 청한다. 양송은 어명을 받고 마지못해 허씨를 데려온다. 무양공주와 허씨는 지기의 정을 나누고, 양송도 개과천선하여 두 부인에게서 자녀를 얻는다.
- ③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양공주는 자주 궁에 머무른다. 광무제가 삼공주를 불러 소원을 묻자 취미궁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쓰고 싶다고 한다. 음후 소생의 날양공주 자매가 자신들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나 여읍공주는 처지가 다르다며 거절한다.
- ④ 취미궁에서 삼공주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지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한 여읍공주를 위해 무양공주가 곽후의 화상을 그린다. 태후는 화상 속의 곽후가 평복인 것을 보고 슬퍼하고, 광무제의 동의를 얻어 음후로 하여금 범복 입은 모습으로 고치게 한다. 광무제는 자신의 화상을 내어 와 함께 걸어 두라고 한다.
- ⑤ 그 후 태후가 영평공주에게 명하여 광무제와 곽후가 초년시절 농사지으며 고생하던 모습을 그리게 하고, 그림을 본 광무제는 참회한다.
- ⑥ 삼공주를 자주 보지 못하여 화가 난 부마들이 편지를 전하려 하나 태감이 이를 막는다. 부마들이 군졸을 데리고 취미궁을 습격하려 한다. 미리 눈치 챈 허씨가 공주에게 급보하고, 날양공주의 남편인 두부마가 와서 다른 부마들을 꾸짖는다. 음후가 공주들로 하여금 부마에게 사죄하게 한다.
- ⑦ 가을이 되어 삼공주는 외할머니 곽주를 모시고 다시 취미궁에 간다. 곽주는 곽후와 광무제의 화상이 나란히 걸려 있는 것과 광무제의 글을 보고 감동한다. 광무제의 글은 조강지처로서 최선을 다했던 곽후를 회고하는 것이다.
- ⑧ 삼공주의 시녀가 각각 셋씩 있는데 이들 또한 풍류남자들을 피해 공주 곁을 지키고자 약속한다. 곽주가 나온 후 날양 자매가 들어와 삼공주와 함께 소유한다.
- ⑨ 광무제가 삼공주를 곁에 앉히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다. 꿈에 광무제는 곽후가 되어 곽후의 삶을 살고는 눈물을 흘린다. 삼공주는 이 이야기

- 를 웃고 울며 듣고,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곽후는 상쾌하게 여긴다.
 ⑩ 곽주도 돌아가시고 마황후 봉하시던 날, 날양공주는 꿈에서 옥경 조회에
 참여하여 황실의 모든 사람을 만나고 꿈을 깨어 이 일을 기록한다.

1) 남성 권력의 배치와 가족의 갈등

<취미삼선록>은 무양공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다음은 양송과 혼인한 무양공주가 주로 머물러야 하는 공간인 시택과, 부부가 함께하는 궁궐 내 공간인 무양궁의 모습이다.

공궐 구가의 머머러 신희성정의 구고를 밧들미 하늘의 소사난 정성과 규목의 그죽헌 부덕이 출진탁월하야 천가의 거만함과 금지의 존하를 닛고 겸공비 약하야 숙미를 우공하고 친척을 돈목하야 호발도 왕회에 부귀를 그공하미 업고 부마를 대빈긔치 섬기나 녕정식 〃 하야 스실의 부박한 희룡을 물니치니 도 위 기리 흔하고 공궐 가군의 인물을 스랑하야 그마니 슬허하디 담연이 입의 말이 업고 글을 디하면 노국결부단을 보고 니소를 읊허 성년에 흔 번 모후를 만나 평성 설운 정을 다하고 돌홀 안아 물의 줌기고더 믿음이 이서 스실의 혼연흔 화기 업스디 (25~26면)

이러구러 무양궁을 완필하매 낭부 고허 당원을 널니고 단각을 세우니 누디 최의하야 운간의 님니하고 천문만호의 화동도란이며 금벽박공이 원근의 보이더라 부마와 공궐 침단을 운향던 문화단을 상이 어필노 제익하샤 금으로 메워 놓히 들고 출합하는 날 데 친히 동가하야 나와 보시고 삼단이 가디록 두긔기사 상궁 수십과 궁녀 수백과 티감 궁노 수천여 명을 스급하시고 금궐침단으로 각 〃 고졸 메워주시니 공궐 불승송연하야 진정으로 다 스랑하고 오디 스식이 적연하야 즐기디 아니 〃 상이 그 연고를 무르신더 공궐 타루 더왈 황야와 모후이긔치 권염하시를 보오니 동히 모후를 생각하옵는 뜻이 비하옵고 (33~34면)

갓 혼인한 무양공주의 구가(舅家) 즉 시택에는 시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있지만 남편에 대한 애정은 없다. 무양궁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수많은 궁인들이 넘쳐나지만 공주는 즐겁지 않다. 이 두 공간은 여성의 일상이 영위되는 구체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며, 그곳에서 무양공주는 화기 없이 칙연하기만 하다. 특히 조선시대, 여성에게 있어 며느리나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간은 여성의 구속과 인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무양공주의 혼인은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어서 그녀의 불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²⁰⁾ <취미삼선록>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갈등은 부부 갈등인데, 예문에 제시된 두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는 부부 갈등의 심각성을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양송과 무양공주의 부부 갈등 및 무양공주의 불행한 혼인 생활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아버지 광무제이다. 광무제는 양송의 인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의 만남을 전제로 한 연애혼이 아닌 당시의 혼인이 가지는 한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취처 여부도 따지지 않은 광무제의 혼사 결정은 크나큰 잘못이다. 당시 아버지는 가장권의 주체로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하지만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그 권력은 딸의 행복을 위협하는 억압적 기제가 되었다.²¹⁾ 그 결과 광무제는 딸의 불행을 자초한 아버지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되었다.

무양공주의 불행한 혼인 생활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는 남편 양송이다. 양송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양공주와 혼인하고 싶은 욕심에 취처

20) 예문에서 언급된 불행의 또 다른 원인은 ‘어머니의 부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21) 음후는 광무제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딸의 혼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화를 냈고, 태후 역시 부모를 겸하여 즉 어머니의 몫까지 고민하여 결정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 진노하였다. 무양공주의 친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음후에게라도 상의를 하였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독단적 권력 행사가 딸을 불행으로 이끈 셈이다.

및 허씨의 출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거짓말로 변명한다. 그의 거짓말은 우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서 더 심각하다.²²⁾ 일찍 진실이 밝혀졌다면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을 수 있는 사안이다. 양송의 이 같은 행위는 부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혼인 생활이 행복할 리 없다.

게다가 고요하고 소박한 성품을 지닌 무양공주와 달리 양송은 한마디로 호색(好色)하는 인물이다. 양송은 ‘위인이 표리 현격하야 니를 보면 의를 닛고 식을 보면 형실을 버리’(21면)며, ‘성정이 솟는 물 꺾고 화려하며 번극 하여 쥬식으로 황음(荒淫)하물 즐기’(73면)는 인물이라 무양공주와는 대상 부동(大相不同)하다. 무양공주는 양송의 이러한 성정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가정 내 권력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남성의 일방적인 성적 욕망 표출은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²³⁾ 무양공주는 남편을 예로 대할 뿐 마음 깊이 존중하지는 않는다. 남편에 대한 냉담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소한의 저항 의지를 표현할 뿐이다.²⁴⁾ <취미삼선록>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이 사건

22) 광무제가 자신의 사위가 되라고 하자 양송은 이미 취처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한다. 이후 광무제가 양송을 불러 취처 여부를 묻자, 허씨가 죄를 지어 부득이하게 출거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공주와의 혼약을 알게 된 부모가 상전에서 왜 사양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자, 재삼 사양했으나 광무제의 뜻이 엄절하여 간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23) 조선시대에 성욕은 남성, 특히 사대부 남성이나 돈이 있는 남성에게만 허여된 특별한 욕망이었다. 성욕이 사대부 남성에게 특별히 용인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표현적으로 과도한 욕구 배출은 금지되었다. 제가(齊家)와 청정한 마음가짐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지나친 호색은 훈계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 수난의 주된 요인이기도 했다.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pp.226-227 참조.

24) 여성 주인공이 성적 주체성을 내세워 남편을 거부하는 내용은 여성의 주체적 의식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작품들에서 주로 발견된다. <쌍성봉효록>의 여주인공 정계

화되어 문면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부부 불화의 중요한 요인은 짐작할 수 있다.²⁵⁾

<취미삼선록>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공간은 양송의 정실 허씨의 침소이다. 양송은 허씨가 ‘청한녕담호를 불열호녀 지취을 심각하느 허씨 효행과 부덕이 현숙호냐 미과도 잡을 길이 읍셔 무단이 불초호물 이르고 구박호녀 도라보닌’(22면)다. 남편에게 출거당하였다가 무양공주의 노력으로 다시 시택으로 돌아오게 된 허씨는 옛 침소에 이른다.

구고 숙미 등이 호가지로 반겨 마자 위로호여 옛 침소의 도라보내니 옥상 나유의 경디 주함이 의구호디 뜻글이 즙옥호여 망시 업혔고 것구러진 탁즈와 바아진 기명이 오히려 어즈러운 자취 이시니 당일의 부마의 무단이 욱며 구박호여 보닌던 경식이 완연호디라 물식이 처량호니 스스로 옛 자취를 늦기고 새 경계를 두려호야 허회초창하고 부마의 심지를 심각건디 전자는 만승소교로 부귀조식을 겸호야 비필호를 괴약디 아닌 배로디 오히려 새 인연을 구호매 무단호 엄증과 포려호 노를 아오라 무식호 즐육과 분호 호령이 풍뇌구발호야 성진턴디호니 공산의 밍회 놀치고 복학예 놓이 소호 치는 듯

임은 결백하고 냉담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남편 유한유의 방탕하고 호방한 기질을 못마땅히 여겨 부부 간에 불화하게 된다. 그녀는 제도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성적 자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진양문록>의 하옥주, <명주기봉>의 화옥수 등도 남편과 불화하는 가운데 부부 결합의 가장 기본 요소인 동침을 거부함으로써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p.73 참조.

25) 부마가 개과전선했다고 했을 때 언급된 것 역시 ‘호색(好色), 방일(放逸), 황음(荒淫)’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성향이 무양공주와 허씨가 견디기 힘들어한 양송의 큰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부마의 무신편벽호고 외면교식호는 간능무의로도 점호 기과전선호야 두 부인 등디호를 능히 궂치 호고 범스의 엄치를 도라보기의 미쳐시디 텃성 호식 방일호른 능히 주리잡디 못호야 궁둥 미아를 무심히 본 적이 업스디 공쥬와 부인이 호갈궂치 엄두의 거리씨디 아니호고 지성기도호야 부덕이 숙노호 분이니 도위 더욱 감동호고 년장호매 호호 황음호기를 그치고 (pp.68-69)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간은 여읍공주와 음풍이 다투던 누각이다. 이곳은 여읍공주의 휴식처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음풍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²⁸⁾ <취미삼선록>에는 여읍공주와 음풍의 갈등이 사건으로 표면화되지는 않는다.²⁹⁾ 그러나 부마들의 취미궁 습격 사건 때, 주위의 만류로 물러난 양송과 달리 음풍은 혼자 재습격을 도모하기도 했고, 사건 이후 사죄의 편지를 쓰라고 했을 때 여읍공주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며 유모에게 시켜버리는 것으로 보아, 부부 갈등이 누구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옥환기봉>에는 여읍공주와 음풍의 만남과 혼인, 그리고 여읍공주의 죽음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두 작품을 겹쳐 읽는 것은 <취미삼선록>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음풍은 여읍공주가 떨어뜨린 금비녀를 몰래 주워 달아나고 이 일을 계기로 여읍공주는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게 된다. 그녀는 친어머니 곽후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과 더불어 새어머

오면 오장군의 칼을 시험하리라 한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 당돌히 군자의 뜻을 모르고 나아갔다 사생을 가벼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즉 당신이 나를 보낼 때 부르지 않는데 오면 죽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히 군자의 뜻을 모르고 돌아갔다가는 그 칼에 맞아 죽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다. 양송은 피차의 잘못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허씨는 최대한 예를 갖추어 비판의 일격을 가한다.(박은정, 앞의 논문, p.155 참조) 마지막해 돌아오는 허씨는 '경박탕즈의 무식불의혼 거동을 디홀 일 싱각흐니 희음 업시 두골이 쓰리는 듯 눈썹이 모히고 탄성이 니러난'(p.59)다고 할 정도로 양송을 경멸한다.

28) 이 공간은 <취미삼선록>에는 구체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취미삼선록>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여읍공주의 부부 갈등이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결말로 마감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옥환기봉>의 내용을 일부 언급하기로 한다.

29) <취미삼선록>에서는 여읍공주의 말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의 과정부터 옳지 않았으며 음풍의 폭력성이 자신의 천명을 위협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마들의 취미궁 습격 사건 때 두부마의 개유로 물러나는 양송과 달리 음풍은 재습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의 날 취히미 무별무의흐야 금슈의 되니 내 어이 금슈의 짝이 되리오 (중략) 더의 포려흔 너 나의 스싱을 도라보다 아닛느니 타일 내 텨명으로 죽디 못홀가 녀엇더니 형은 건식이 붉은 사름이라 그 염여흐는 지극흔 뜻을 다 아느니 스스로 그 몸을 앓기디 아니미 아니」이다' (p.97)

니 음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지내는데, 음풍은 두 어머니에 대한 여읍공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음풍은 여읍공주가 음후에게는 자주 가면서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고, 누각에서 공주를 발로 차 내리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³⁰⁾ 여읍공주의 불행한 혼인은 음풍의 일방적 구애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녀의 불행한 삶은 살인이라는 가장 극악한 폭력으로 마감하였다. 이 모든 비극은 남편과 함께한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다.

무양공주의 시대, 무양궁, 허씨의 침소, 여읍공주의 누각, 이 공간들은 여성들이 주로 머물러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권력이 주도적으로 배치된 공간이다. 그곳에는 행복한 일상은커녕 남성으로부터 수난을 겪는 여성들의 불행한 기억만이 존재한다.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들, 즉 광무제, 양송, 음풍 등은 하나같이 소통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다. 이 공간에서, 정서적 공감이 전제되지 않은 남성의 일방성은 여성들의 소통 의지를 퇴색시키고, 남성이 그녀들에게 가하는 심리적·육체적 폭력은 여성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공간들은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공간이지 여성이 주체가 되어 구축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성 권력이 배치된 공간에서 가부장적 규율과 남성의 일방적 욕망이 폭압으로 균립할 때 가족 갈등은 확대되고 심화된다는 것을 이 공간들은 보여주고 있다.

30) <옥환기봉> 권25에 만남의 과정, 권27에 부부의 불화, 권28에 여읍공주의 죽음이 기술되어 있다. 다음은 여읍공주가 죽음을 맞이하는 대목이다. 부미 노기 열화 갖터여 공주를 박차 난간 바긔 나리치니 공췌 천금귀골노 십장 누희의 썩러져 어이 슬물 어드리오 괴절히여 인스를 모르니 궁중이 황〓히여 디니의 고흔디 낭전이 디로디히스 부미를 하옥히시고 낭전이 침님히여 보시니 명막이 쫓지 아냐거늘 태휘 공췌를 안고 그 상쳐를 보샤 실성통곡히시더라 삼일의 종시 구치 못히니 데 디로히사 부미를 스샤히시고 크게 슬워히시며 공췌를 윈능 안산 두던의 장지를 정히시고 부미와 동혈치 말는 히시다 <옥환기봉> 권28, pp.26-27.

2) 여성연대를 통한 공감과 가족의 화해

이제 공주들은 남성 권력이 작동하는 억압의 공간에서 벗어나 그녀들만의 공간을 추구한다. 비록 일상의 공간에서 변화와 개선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그 공간을 벗어난 또 다른 공간을 추구함으로써 기존 공간에 대한 거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관계와 다양한 가능성이 잠재된 여성공간이 바로 취미궁이다. 취미궁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무양 자매는 왜 취미궁을 원하는지, 그곳에서 그녀들은 무엇을 하는지, 취미궁은 그녀들과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사는 가족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취미궁이라는 공간의 탄생과 함께 변화하는 가족 갈등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취미궁과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들을 추수해 본다.

무양 자매의 취미궁 생활은 광무제가 공주들에게 소원을 묻는 데서 시작된다. 광무제가 공주들을 불러 앉히고 소원을 묻자, 생전에 모후를 만나는 것과 부마들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³¹⁾

일 "은 데 삼공주를 가까이 안치시고 소원을 무르시니 일시의 척연 디왈 소녀 등이 임의 부황모후의 천귀우로지킵을 밧줍고 또 왕희예 부귀 극호오니 다른 원이 이시리잇가 오직 모후를 생전의 만나믈 원하나다 언파의 옥늬 현영하니 데 감동하샤 슬피 녀이시더니 또 문왈 그 밧기 너희 소성의 물종을 구할 거시 업느냐 무양이 더왈 쇼네 텃성이 즐하고 고요하야 한가코 담소흔 품이어늘 부매 성정이 솟는 물 긷고 화려하며 번극하여 쥬식으로 황음흔물 즐기니 신의 뜻과 더상부동흔디라 일동일정이 다 이목의 어귀니 춤고 건디미 임의 세월이 오려와 점 " 인세 일이 괴롭고 염호오니 황야와 모후를 시측하와 궁둥의 머물미 원이오더 부매 텃가 녀즈로 부귀를 탐하고 교룡하여 궁금의 들고 나디 아닛는다 즐척이 좃스오니 경개 뭍고 바혀난 곳을 시 "로 여성을

31) 남편과의 갈등을 얘기하지 않고 수정령을 갖고 싶다고 한 관도공주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우유히미 원이로소이다 관되 니어 진왈 신은 슈정념을 어더 당등의 쳐두고 안밖기 통낭하여 비취를 보고더 흐느이다 여음이 니어 디왈 신은 일낭 시녀로 옥저와 과합을 들니고 산간슈애를 한가히 노닐며 부마의 미친 거동을 아니 보미 원이오니 황애 임의 소녀 등의 소원을 무르시니 원컨디 종남산 취미궁을 소녀 등을 빌니샤 시절노 나가 놀게 흐시고 또 흡스 금판을 주샤 제왕 부마 이허를 취미궁 근처의 가디 못하게 어필노 뼈 주시면 이거시 소녀 등의 지원 이니이다 (72~73면)

본격적인 취미궁 생활에 들어서면 공주들의 부부 갈등보다 어머니 곱후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거론된다.³²⁾ 사실 무양 자매에게는 부부 갈등 이전에 더 깊고 근원적인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부재(不在)’이다. 어머니의 부재는 광무제와 곱후의 부부 갈등에서 연유한 것이며, 이는 곧 어머니 곱후와 딸들의 불행과 닿아 있다.³³⁾ 공주들의 본격적인 취미궁 거쳐 이후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곱후와 관련된 것이며, 그 일을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공주들이 취미궁에 가서 맨 처음 하는 일은 곱후의 화상을 그리는 것이다. 곱후의 막내딸 여읍공주는 아주 어렸을 때 곱후와 헤어지게 되어 어머니의 모습조차 기억하지 못한다.³⁴⁾ 여읍공주는 남편 음풍과의 관계도 좋지

32) 이승복(앞의 논문, p.173 참조)은 취미궁에서 부부 갈등과 더불어 곱후의 문제가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3) 가족학 연구자들은 핵가족 형성에 있어서 원가족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방식은 결혼한 기혼 자녀의 핵가족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며, 이와 관련해 원가족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부모의 낮은 결혼의 질이 성인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들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아동기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따듯하고 지지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하상희, 『기혼 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자존감 및 부부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 pp.1-4 참조.

34) 금일 천고 영결을 당하여 부녀의 연흔 간당의 물 갖흔 정이 절노 더은 눈물이 옷

않지만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트라우마가 가장 큰 딸이다. 이런 여읍공주를 위해 큰언니 무양공주는 침전에서 늘 보았던 곽후의 모습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며 딸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어느 날 취미궁을 방문한 태후가 곽후의 화상을 보고 놀라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림 속 곽후는 황후의 범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광무제도 십칠 년 황후가 범복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음후가 나서서 범복을 차려 입은 곽후의 모습을 실물과 같이 그려낸다.³⁵⁾ 곽후의 화상을 본 광무제는 자신의 화상을 내어 와 곽후의 화상과 한데 걸어 놓게 한다.

이 일은 폐위된 곽후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평복 차림의 곽후 모습이 옳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한 태후는 곽후의 시어머니이다. 또한 곽후를 내친 장본인인 남편 광무제가 그 소생의 자녀들 앞에서 황후로서의 곽후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 화상을 그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곽후를 대신 하여 황후의 자리에 오른 음후이다. 이 화상 그리기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황후로서 곽후에 대한 인정이며, 이는 곧 폐위된 곽후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진다.³⁶⁾ 아버지에게서 내쳐진 어머니, 그 딸들에게 어머니의 명예 회복은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여읍공주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라고까

압히 뵈다져 좌우 즈녀의 우는 양을 보고 소리를 숨켜 드러가 명일의 즈녀를 새 후기다 바치고 품속 적즈를 므자 아사가니 내 안고 기급혀여 울고 작노혀여 즈녀와 모친을 다 영결혀니 학발은 안고 통곡혀고 삼녀는 붓들고 호곡혀니 내 간당이 이세 촌" 이 뜻처더 (pp.184-185) 곽후가 궁에서 쫓겨나던 날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곽후가 안고 있던 품속의 적자마저 뺏아가는데, 그 품속의 갓난아이가 바로 여읍공주이다.

35) 데 점두혀시고 우왈 십칠 년 황후라 무스 일 죄담 범복을 못혀리오 태후 좌우를 도라보샤 왈 여 등이 뉘 내 뜻을 바다 고쳐 그릴고 휘 쉼니 빈슈왈 신이 화범이 비록 줄혀야 감히 진본을 일우기 어렵스오나 후를 우리" 셤기완 지 오래와 등심의 감히 니즈미 업스오니 시험혀와 보아지이다 (pp.107-108)

36) 소인호(1995, 앞의 논문, p.185)는 '무양 부부의 갈등 구조와 맞물려 있던 곽후 폐출사건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론 곽후의 현실적 지위가 복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명예 회복을 통해 곽후의 폐출 문제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지 말한다.³⁷⁾

이 일이 있는 후 태후는 광무제의 여동생 영평공주를 시켜 광무제가 황제에 오르기 전 가난하던 시절, 두 사람이 함께 고생하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그림 속의 광무제는 단갈포의로 쟁기를 메고 소를 몰고 나간다. 그러면서 조를 비비고 채근하는 광후의 모습을 재삼 돌아본다. 농사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자꾸 광후를 돌아보는 광무제의 모습에서 광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황제나 황후가 아니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만으로도 행복하던 시절이었다.

파연 후 태후 영평을 명하사 상이 남둔 모려의셔 단갈포의로 줄기 메고 소 몰고 나가시며 광후를 지삼 도라보시던 거동과 광휘 조 부뵈여 노코 최근 키시던 거동을 작은 김의 그리시니 영평공주 후의 남은 조화를 니어 데의 거동을 더욱 방불이 그려내니 상이 비록 입으로 우스스나 등심은 참괴 비상하시고 태휘 더욱 반기고 깃그샤 제즈녀를 뵈시고 가져 도라가샤 침던 벽상의 부치시니라 (114면)

이 그림은 지난 시절 광무제와 광후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면서 동시에 현재 두 사람의 관계를 반추해보게 하는 장치가 된다. 그림을 본 광무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몹시 부끄러워한다. 그림에 그려진 지난 시간은 광무제로서는 음후를 만나면서 잊어버렸던, 잊고 싶었던 과거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거를 마주 대하는 일이야말로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의 실마리이자 광무제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다.

부마들이 취미궁을 습격하려던 한바탕 소동이 있던 후, 한동안 취미궁에 가지 못하던 공주들은 가을이 되어 광주를 모시고 다시 취미궁에 간다. 광

37) 데 어르문더 위로하시니 공주 디왈 소네 삼던 턴은을 님스와 오날이야 모후의 면목을 아읍고 턴니 부모의 일당의 상디하시를 보오니 비로소 평성 유희이 저기 풀니읍는다 라 츠석의 죽어도 혼이 업스리로소이다 (p.112)

주는 곽후와 광무제의 화상이 나란히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 옆에 태후와 광무제의 글이 있다. 광무제의 글은 곽후의 화상과 영평공주가 그린 그림을 보고 삼공주를 위로하고자 지은 것이다. 글을 통해 광무제는 다음과 같이 곽후를 회고하고 있다.

‘곽후는 명족의 딸로서 자신에게 시집 와서 빵을 따고 삼을 잡는 일로 하루를 보냈고,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겼으며 시누이와는 우애가 깊었다. 영욕을 함께한 조강지처로서 황제가 되는 데 내조의 힘이 컸으며 먼저 아들을 낳아 길렀다. 과실이 적지 않아 부득이 폐위하고 변방 태후를 삼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의 탓도 내 허물도 아니고 천명일 따름이다.³⁸⁾ 이별하게 되어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옛 일을 생각하니 감창한 정이 새롭고, 홀연 외로운 얼굴이 빈 벽에 걸린 것을 보니 두어 줄 눈물이 흘러내린다.’

글에서 광무제는 곽후의 공에 대해서는 길게 서술한 반면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다. 광무제에게 있어 이 글은 곽후에게 전하는 일종의 반성문과 같은 것이다. 곽후의 어머니인 곽주는 이 글을 읽고 크게 감동한다. 광무제가 이 정도로 곽후를 생각한다면 자기도 이제는 괜찮다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곽주는 폐위당한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위에 대한 서운함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곽쥬 눈을 찢고 어서를 바라보기를 열 번이나 다시 보고 감복하기를 마디 아니하다가 가운더를 보아오며 눈물이 낭빈이 저젓더라 다 보고 던문을 줌으
고 곡난을 도라나오며 공주를 보고 탄식왈 노피 금일노브터 설위 아니허리라

38) <취미삼선록>에는 ‘천연(天然)’ 또는 ‘천명(天命)’이라는 이름으로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무양공주와 양송의 혼인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천연이라 하여 성사시켰고, 광무제는 음후를 맞이한 것이 천명이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다. 장효현(앞의 논문, p.705)이 지적한바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나 작가의 식은 사실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은 이 작품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태낭 〃 은 니르도 말고 데의 싱각이 이 곳흐시믄 내 실노 괴약흔 배 아니라
 흐믈며 후를 찬흐시미 노모로 흐여곰 지어도 이에 더으디 못흐고 타일 제즈로
 흐여곰 횡장을 일우라 흐여도 이에 감히 더으디 못흐리니 호발의 차실흐미
 업고 옥 곱흔 횡실을 일크르시며 또 숙인의 비기시고 봉비지공과 의가지낙이
 잇던 줄 표흐시니 성현지군의 비필이 되어 종고화락을 다흐시고 십칠 년 텃하
 지되 되어 더 즈손을 씨치고 죄기 죄로 폐위흐시나 그 아르시미 여츠향시니
 또 무어술 설위흐리오 (150~151면)

이런 일들이 있는 후 어느 날 광무제는 딸들을 불러 앉히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다. ‘꿈에 음후와 자신이 취미궁으로 들어가니 그곳에 곽후가
 와 있다. 곽주가 곽후를 향하여 부채를 부치니 곽후는 남자가 되고, 곽주가
 준 대추를 먹은 광무제와 음후는 여자가 된다. 여자가 된 광무제는 남자가
 된 곽후와 혼인하고, 광무제는 곽후가 되어 곽후가 겪었던 일을 고스란히
 반복해서 경험한다.’ 광무제로서는 완벽한 역지사지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다. 이 꿈을 계기로 광무제는 곽후의 처지와 고통을 십분 이해하게 된다.³⁹⁾

취미궁 생활을 시작으로 곽후 화상 그리기, 초년시절 모습 그리기, 광무
 제의 회고 글쓰기, 광무제의 꿈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을 통해 조강지처 곽후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광무제의 반성이 이루어졌
 다. 어머니와 딸의 명예 회복, 아버지와 사위의 반성을 얻어낸 공주들과
 곽주는 이제 광무제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
 유를 가지게 되었다.⁴⁰⁾ 용서는 바로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다.

39) 임치균(앞의 논문, pp.369-370)도 남성의 깨달음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부부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남성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분명
 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전히 남성의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
 는 당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부부 관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남성의 이해에 대한 전제가 당시 부부 관계의 한계라고 보았다.
 그러나 남녀가 만나 이루는 부부 관계에서 남성의 이해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바람직
 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한계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의 일들은 취미궁이라는 공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⁴¹⁾ 취미궁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화해의 단초를 마련하는 곽후 화상 그리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무력했던 여성들이 취미궁에서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변모하였다. 취미궁이라는 여성공간은 건강한 여성연대를 형성하게 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가족의 화해를 이끌어내었다. 소통 부재인 남성 권력 중심의 공간과 달리, 여성공간에서 이루어진 여성연대는 남성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에 대해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로 대응하였다. 가족의 화해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다양한 여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동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 취미궁을 통해 여성공간과 여성연대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다.

40) 구선정(2004, 앞의 논문, pp.39-40 참조)은 ‘취미궁은 남성들의 횡포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갈등으로부터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곽후가 다시 환생하여 광무제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즉 자신의 훼손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취미궁이 화해의 공간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취미삼선록>의 주제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취미삼선록>은 시종일관 광무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 용서를 받을 사람은 광무제이고, 용서의 주체는 광무제로부터 상처받은 아내, 딸, 장모이다.

41) 소설의 공간은 현실의 공간이 서사과정에서 굴절된 공간이며, 단순한 배경으로 제시되는 공간과 운동성을 지니고 인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간, 두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는 물리적 성격을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 장소, 환경의 차원에서 그치지만, 후자는 삶의 방향, 가치관을 함의하는 상징성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 pp.284 참조. 앞서 논의한 무양공주의 시택, 무양궁, 허씨의 침소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취미궁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물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3.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1) 여성공간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

남성 권력이 배치되고 작동되는 공간에서 타자로 존재했던 여성은 수동적이었고 불행했으며, 가족 갈등은 심화되었다. 반면 여성연대로 형성된 공동체 공간에서 주체가 된 여성은 능동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섰고, 가족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취미궁은 단순히 수동적인 도피처가 아니다. 부당한 남성 권력에 대한 자발적 거부 의지와 변화의 노력이 만들어낸 적극적인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었다.

취미궁은 부녀 갈등을 화해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여성공간 취미궁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인물은 뜻밖에도 남성인 아버지 광무제이다. 공주들의 취미궁 생활 이전, 아버지 광무제의 관심은 오로지 음후에게만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 않았다.⁴²⁾ 그랬던 광무제가 취미궁에 걸린 곱후의 화상을 보고 그 옆에 자기의 화상을 함께 걸게 한다. 무양 자매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화목한 공간을 온전히 가져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녀들의 공간 취미궁에 그림으로나마 부모가 나란히 좌정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광무제는 공주들을 둘러앉히고 화기 만만하여 곱후의 화상과 자신의 글을 본 곱주가 무엇

42) 이런 광무제의 태도는 작품 전반부 곳곳에서 드러난다. 광무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딸의 혼사를 그르친 데 대해 음후가 못마땅하게 여기자 자녀에게는 평온하면서 왜 자기에게는 냉담한지 음후에게 투정을 부린다. 또한 음후가 부마의 무도한 성품을 보고 무양공주의 불행을 슬퍼하여 형용이 초췌해진 것을 보고서야 자신의 판단이 그릇되었음을 깨닫는다. 무양공주가 허씨의 복위를 요청했을 때는 그것이 음후의 교훈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음후는 무양공주의 태도는 곱후의 덕을 품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광무제의 무신을 탓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곱후의 편지를 보고 자신은 양송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변명한다. 그러자 음후가, 곱후는 개과했는데 당신은 왜 개과하지 않았느냐며 질책한다.

이라 하더라도 묻기도 한다.⁴³⁾ 그는 이제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인물이 되었다. 남성 중심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조화를 이루는 남성으로 변화하였다. 취미궁에서, 곽후리는 연결고리를 통한 광무제의 변화와 가족의 화해는 상처받은 그들을 치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주들의 부부 갈등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해자에 해당하는 남편들의 구체적인 반성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의 과정도 겪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취미궁은 나뉠대로의 기능을 한다. 그녀들에게는 상처받은 자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보듬어줄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다. 고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고충을 토로하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동료애나 소속감과 같은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⁴⁴⁾

무양 자매가 낯양 자매를 거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낯양 자매는 광무제가 취미궁에 써 준 ‘삼공주 흡사금지’를 ‘오공주 흡사금지’로 고쳐 달라고 한다. 그러나 무양 자매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낯양 자매에 대한 거부는 일견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감의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무양 자매에게는 여성이라는 동질성보다는 삶의 궤적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성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여성 연대라는 것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통과

43) 데 파도 후 드러오서 좌우로 안치시고 화기 만안하샤 다소 말씀하시다가 소왈 곽취후의 화상을 보고 잊지 하며 덤의 글을 보고 무어시라 하더뇨 (pp.172)

44) 문화인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에 따르면, 공동체란 상상의 커뮤니티이다. 공동체는 개별적인 상징적 장소를 공유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준-종교적 소속감과 동료애를 제공하는 상상의 커뮤니티이다. 그 장소는 지리적으로 경계 지워진 공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는 상징적인 정서들이 퇴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공동체의 공간은 집단적 기억들을 품고 있고, 그 기억들은 공동체 의식을 생겨나게 하는 강력한 정서적 힘을 갖는다. 이상화,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차이의 존재론과 공간성의 사유』, 『한국여성철학』 제4권, 한국여성철학회, 2004, pp.89 참조.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동질성의 회복 이후 실질적인 연대가 가능하다. 낯양 자매와 무양 자매가 취미궁을 원하는 이유는 확연히 다르다. 낯양 자매는 취미궁을 휴식이나 여가의 공간으로 생각했겠지만, 무양 자매에게 취미궁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생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절박한 공간이었다. 특히 낯양공주는 남성 권력을 거부하고 그곳에 종신하고자 하는 무양 자매를 질책하며 부도를 닦을 것을 요구한다. 남성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린 낯양공주는 가부장제 사회를 영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대목이 바로 무양 자매가 낯양 자매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점이다.

부부 갈등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인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처받은 여성의 치유와 회복이 더 급선무이다. 취미궁이 부부 갈등의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여성연대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할 수는 있다. 취미궁 생활 이전 무양공주와 허씨는 양송의 표리부동한 언행과 폭력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고향의 명예 회복 이후 취미궁 습격사건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강해졌고 한편으로는 여유로워졌다. 양송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고 다시 돌아온 무양공주는 허씨와 자녀들을 만나고, 양송의 거조를 이르면서 흑탄혹소(或嘆或笑)한다.⁴⁵⁾ 양송과의 과거지사가 가벼운 이야깃거리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희석되었다는 뜻이다. 부부 갈등에 있어서, 취미궁은 용서와 화해와는 또 다른 간접적인 치유의 방법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이처럼 부녀 관계와 달리 부부 관계가 온전한 화해에 이르지 못했음에

45) 낭공췌 나가 즘이를 싸이고 부마의게 사죄하니 부매 반기고 깃거 다시 칩디 아니코 공췌 등이 후의 성덕을 감은호고 본디 혼 조각 온공한 뜻과 구가 조심호는 믿음은 극진호디라 스식을 강잉호며 무양은 허부인과 즘녀를 만나 그 스이 회포를 니르고 정을 펴며 부마의 거조를 흑탄혹소호고 (p.134)

도 불구하고, 치유를 통한 그녀들의 변화는 공간에 대한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가) 삼공쥐 취미궁 형식을 삼부매 알고 작회홀가 두려 황상 명으로 스테태 감 당경으로 하여곰 궁등을 디회게 하고 삼공쥐 제왕 등으로 혼가지로 취미궁의 니르러 두루 완상하니 이 진실노 요디궁궐이오 봉니방당이 라 소유쾌락하야 깃브를 이기디 못하나 도운석월의 턴애를 브라 고요 혼 곳의 모후를 스모하미 일〽 층 가혼 등 (102면)

(나) 괘취 나간 후 날양 연양이 드러와 날마다 학낭 소어로 옥호와 과합을 들니고 원님과 디사의 두로 노라 산간 슈애로 든니며 흥을 부치니 강산 이 절승하고 추경이 명여흔디 봉만이 차아하고 폭포 뉴쉬 더욱 괴이하며 괴화요초의 향기 웅비하며 괴금이쉬 꺾지 아닌 거시 업서 대니 원유 의셔 승흔디라 삼공주는 거름이 너어 느는디시 든니며 승경을 자랑하고 폭포천의 관민을 뺏고 연화봉의 좌를 비설하여 국화시를 서로 읊고 슈륙진찬과 스독관현이 슬핀디라 향긋로운 과실과 괴이흔 차를 나오고 형데 머리의 국화 봉오리를 씻고 궁녀를 명하여 목은 가스와 묘흔 춤으로 쇼견하여 성〽 이로 옥저를 불니고 오식 잉무로 시를 읊히며 형데 글을 화답하며 인간의 흥미 이에서 더오미 업다 하고 …… 봉만과 절학의 거름이 느는 듯하야 나의치삼이 표〽 히 부치이고 창애 취벽의 경운과 감천을 서애가 총농하고 영지와 지초는 암석의 용출하니 회고 연〽 하나 빅월이 만영하고 득풍이 수〽 하니 치네 좌우로 비회하며 느려오니 피속 구름수를 못근 솟남기 세상 가온디셔 먼니 바라보면 신선과 범인을 분변티 못하리러라 혼가지로 도라오니 (163~170면)

(가)는 공주들이 처음 취미궁에 왔을 때의 상황이다. 취미궁의 경치는 단연 아름답고 그곳에서 지낼 생각에 기쁜 마음이 컸으나 괘후에 대한 그리움으로 공주들의 슬픔은 깊어만 갔다. 이때 취미궁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와의 화해 및 공감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겪은 이후 취미궁의 모습이다. 이제 그녀들은 생기가 넘친다. 걸음은 나는 듯하고 신선과 범인을 분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롭고 행복하다. 불행의 기억을 떨치고 낯양 자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공주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과 더불어 취미궁의 외양, 자연 경관 등이 무려 8면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묘사된다.⁴⁶⁾ 공간의 물리적 특성은 변화하지 않지만, 공간 내부에서 행동과 심리의 변화를 겪은 인물에게 있어 그 공간의 전과 후는 같지 않을 것이다. 취미궁 묘사에서 드러난 이 같은 차이는 치유를 통해 건강해진 여성 인물들의 심리를 포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미궁이라는 공간은 여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그녀들의 연대와 행동은 취미궁을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승화시킨 것이다.⁴⁷⁾

46) 한대에는 자연의 산수를 이용하여 그 안 이곳저곳에 궁정을 건축한다.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작은 궁전을 지은 후 바깥은 담으로 둘러버린다. 이러한 궁전은 자연 경관과 잘 조화가 되어 웅장하고 수려한 느낌을 준다. 이 궁의 모습은 황제가 정사를 보는 미양궁(未央宮), 태후가 거주하던 장낙궁(長樂宮), 태자가 거주하는 북궁(北宮), 놀이와 감상을 위한 건장궁(建章宮), 널따란 연못인 태액지(太液池), 이 못 안의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무척이나 아름다운 경치였다고 한다. 변성규 편저, 『중국 문화의 이해』, 학문사, 2003, p.442. <취미삼선록>에 제시된 취미궁 묘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대 궁정 건축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47) 구선정(2007, 앞의 논문, pp.216-217 참조)은 취미궁이 곧 낙원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작품 전반의 언급과 후반의 묘사를 연이어 제시하였다. 한길연(앞의 논문, p.177)도 ‘무양공주 등의 세 공주가 취미궁에서 지내는 모습이 마치 소풍 나온 여인들처럼 경쾌하게 그려지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시택을 떠나는 비장함이 드러나기보다는 한바탕의 화전놀이를 하고 오는 듯한 가벼움을 보여준다. 이는 <취미삼선록>이 당대 남성중심적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롱 정도에서 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토피아의 실현이 남성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성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여성만의 유토피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다.’(p.160)고 하였다. 그러나 인물들이 느끼는 취미궁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들에게 취미궁은 낙원일 수 없었다. 남성 광무제와의 소통을 통해 화해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 이후 취미궁은 생동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그 취미궁도 일반적 의미의 유토피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취미궁에 가지 못하던 공주들은 작품 말미에 다시 취미궁에 모인다. 다음은 <취미삼선록>에 묘사된 취미궁의 마지막 모습이다.

무양 등 삼공췌 점〃 세고의 걸여 취미궁의 가디 못허더니 낭부 초국부인 허시와 췌부 월국부인 덩시를 평싱의 스모허디 덩부인을 더욱 볼 길히 업고 외도 췌둑과 본궁으로논 더욱 날월 길히 업서 허더니 명년춘의 영평공췌 태원의 근친허야 덩부인을 공췌의 낭즈의 길석의 마자오니 수월 후 도라갈시 그 스이 삼공췌 취미궁의 못고 무수 곤청허니 영평 무양 낭공췌 옥교의 혼디 드러오니 이췌 낭던 어용은 당싱던의 봉안허왔더라 이날 하늘 선네 다 모다 고 온 빗치 일광의 브이고 옥 갖흔 덕과 난초 갖흔 기질과 어름 갖흔 hing실이며 구술 갖흔 지정이 서로 의기 합하고 덕이 손마자 평싱 교도를 밋고 덩부인 스개 시아의 일흠을 크게 드럿더니 공췌 등이 불너 보고 듯던 바의 디나다 허더라 (194~196면)

이 마지막 자리에는 삼공주와 무양 자매의 고모인 영평공주, 그리고 정부인⁴⁸⁾과 정부인의 시녀⁴⁹⁾ 등이 함께한다. 남성들의 독단적인 결정, 정신적·물리적 폭언과 폭력, 무엇보다 일부다처를 용인하는 남성 중심적 질서에 희생되고 상처받은 여성들이 모두 모인 것이다.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48) 정부인은 <도앵행>의 주인공 정위주이다. 정위주는 영평공주가 주원성과 혼인하기 전 주원성과 먼저 정혼하였으나, 시아버지 주당의 반대로 혼인이 무산되고 수절하며 지내다가 결국 주원성과 혼인하게 되는 인물이다. '정위주-주원성-영평공주'의 관계는 '허씨-양송-무양공주'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 마지막 모임은 <옥환기봉> 연작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데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도앵행>의 허구적 인물인 정위주가 <취미삼선록>의 모임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 <도앵행>이 <취미삼선록>에 선행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박은정, 앞의 논문, p.54 참조)

49) 이들 역시 <도앵행>에 등장하는 시녀들로, 공동체를 이루고 자매애를 실현하는 인물군으로 주목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복과 한길연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승복,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 : <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제10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한길연,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신분이 달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에 그녀들은 하나가 되어 어우러질 수 있다. 경계를 넘는 포용과 화합을 통해 취미궁의 치유 기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 취미궁의 헤테로토피아적 성격

<취미삼선록>이 보여준 ‘치유’의 서사는 취미궁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공주들의 취미궁 요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공간의 탄생은 그 자체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⁰⁾ 그리고 무양자매에게 취미궁은 생활 현장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서 또 다른 공간인 ‘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집은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무엇이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해도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길잡이가 되는 어떤 것’⁵¹⁾이다. 무양 자매는 취미궁에서 종신하는 삶을 꿈꾸었지만 끝내 획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집, 즉 취미궁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50) 질 들뢰즈는 토니 네그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가 말하는 사건이란 “표면적이건 소규모적이건 간에 새로운 시공간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정병언, 앞의 논문, p.139.

51) 빈센트 비시나스는 하이데거의 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집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무엇이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해도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길잡이가 되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의 토대, 즉 존재의 거주 장소이다. 집은 단순히 당신이 어쩌다 우연히 살게 된 가옥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든 있는 것이거나 교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의미의 중심인 것이다. 에드워드 렐프 지움, 김택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p.96-97.

그러나 공간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해서는 보다 커다란 의미 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 '산다는 것은 공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인물은 공간을 의미화하고 공간은 인물을 의미화 한다.'⁵²⁾ 공간과 인물, 공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 파장의 공명은 확대될 수 있다. 취미궁이 이러한 상호작용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취미궁의 공간적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취미궁 외부에는 남성 권력이 전유하고 있는 광대한 공간이 있다. 그 외부 공간은 수직적 지배질서가 공고하며, 그곳에서 남성들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광무제의 편벽된 애정은 공주들에게서 어머니를 앓아갔고, 독단적인 혼사 결정은 딸의 불행을 초래했다. 남편들의 일방적인 애정과 물리적 폭력은 공주들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고 싶게끔 했다. 여성이 머무르는 대부분의 공간은 남성 권력의 자기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성 인물은 별다른 저항의 힘을 갖지 못한다. 무양공주의 시대, 무양궁, 허씨의 침소, 여읍공주의 누각 등이 바로 그런 공간이다. 거대한 외부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외부 공간으로부터의 억압을 감내하기만 하는 공간, 그곳에서 여성들은 불행하고 생동감이 없으며 무력하기만 하다.

반면 취미궁은 거대한 공간의 내부에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다. <취미삼선록>에서는 취미궁을 '이궁(離宮)⁵³⁾이라고 지칭

52) 산다는 것은 지리 공간, 즉 장소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장소를 의미화하고 아울러 장소는 거기 사는 사람을 의미화한다. 사람의 몸과 정신, 감정과 기운은 땅에서 오는 자력과 진동,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물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 거처를 삼고 삶을 일구는 자신만의 장소[땅]를 확보해야만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워진다.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p.28.

53) 광취 궁등의 드러오기를 아니나 이는 니궁이오 이제는 너히 처되엿고 더 진본은 말 못흐는 휘니 비록 수천 니의 가보다 못흐나 지척지디의셔 그 얼굴을 혼변 반기디 아니리오 담이 쏘 오기는 거져 등더혀 못 오려니와 너히 형테 도용이 못고 나의 쓰줄 근절이 청혀여 그리는 회포를 위로하라 (p.115) '이궁'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하는데, 이는 다른 공간으로서 취미궁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무양 자매에게 취미궁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공간이다. 취미궁 바깥에서 그녀들은 남성들의 횡포로 인해 평온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나 취미궁에서는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자궁에서의 따뜻하고 안락한 기억을 떠올린다. 취미궁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공허함을 위로해주는 공간이다. 거대한 외부 공간이 중심 공간이라면 취미궁은 주변 공간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곳이야말로 그녀들에게는 우주의 중심일지도 모른다. 취미궁은 그 내부에서 수평적 여성연대를 바탕으로 성취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치유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나 취미궁은 완전히 닫힌 공간은 아니다. 공주들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내밀한 공간에서 무한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부 공간의 강력한 규범과 권력은 취미궁을 폐쇄된 탈속의 공간으로 가만두지 않았다. 음후와 날양 자매가 무양 공주의 취미궁 종신에 대해 불가함을 설파하는 것은 외부 공간의 억압적 기존 질서가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키는 것이다.⁵⁴⁾ 부모들은 물리적 힘으로 취미궁을 침범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같다. ① ‘태자궁(太子宮)’ 또는 ‘세자궁(世子宮)’을 달리 이르던 말. ② 행궁(行宮). 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별궁.(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러나 곽주의 말을 통해 볼 때 ‘이궁(離宮)’이자 ‘이궁(異宮)’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54) 한길연(2009, 앞의 논문, pp.176-179 참조)은 <화정선행록>의 ‘성의궁’과 <취미삼선록>의 ‘취미궁’을 비교하면서 탈속적 자기공간에서 여주인공의 종신 여부를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비판의 한 척도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이와는 좀 다르다. 음후와 날양공주는 무양 자매의 취미궁 종신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 무양 자매도 결국 자신들의 의지와 달리 속세와 절연하고 취미궁에서 종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녀들의 궁극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취미궁에서 그녀들은 많은 것을 얻었다. 그것들은 오히려 취미궁이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닫힌 공간에서 외부의 변화를 기획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는 범인들에게 탈속보다 일상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법일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은 취미궁의 특성이 부정적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공간의 경계를 통해 외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쯤 열린 공간의 경계를 통해 내부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남성적 외부 공간을 변화시킨다. 취미궁 밖 공간에서 무력하기만 했던 공주들은 취미궁에서 상처를 극복하는 주체적 힘을 얻었다. 나아가 그 힘은 외부 세계의 남성인 아버지 광무제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것은 완전히 닫힌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취미궁은 완전히 닫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공간도 아니다. 무양 자매는 낱양 자매를 처음부터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치유의 시간 이후에는 낱양 자매와 함께 그 공간을 누리기도 한다.⁵⁵⁾

취미궁의 에너지는 공간 내부에서 심리적 치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공간 외부로 확대되었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치유는 내부적 공감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외부 공간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그 기능은 더 확장될 수 있다. 내부 공간 취미궁에서 생성된 치유의 에너지는 외부 공간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전환된다. 외부 공간의 인물을 변화시키고, 그 공간이 추구하던 기존 지배 질서에 충격을 가하고 균열을 일으킨다. 광무제는 황제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이다. 그의 변화는 여러 이름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 질서의 변화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반쯤 열리고 반쯤 닫힌’ 공간적 특성을 지닌 취미궁이 외부 공간과의 경계 넘기를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취미궁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며 일정 정도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⁵⁶⁾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는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글

55) 완전히 닫히지 않은 취미궁의 공간적 특성은 공주들로 하여금 요나콤폐렉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능도 한다. 만약 취미궁이 폐쇄적이고 탈속적인 공간이었다면 취미궁에서 공주들의 행복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취미궁은 그녀들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그대로는 ‘다른 공간’이면서 ‘타자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모든 장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주변적 공간⁵⁷⁾이며,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온갖 기능을 행사하는 역동적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인지적 직관으로 채워진 유토피아가 아니다. 유토피아는 완전히 질서 잡힌 사회이거나 아니면 사회에 완전히 대립되는 비현실적 공간인 반면, 헤테로토피아는 불완전한 실재 공간이며 근본적으로 혼란스러운 공간이다.’⁵⁸⁾ ‘헤테로토피아의 기능은 현실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엮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아니다. 헤테로토피아는 거대 권력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된 배치를 교란하고 불안하게 함으로써 다른 배치로 이행하도록 추동하는 공간이다.’⁵⁹⁾

취미공은 남성 권력이 배치된 거대 외부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억압받고 배제된 여성들의 공간이다. 무양 자매는 꿈꾸던 것처럼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이상향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이상향이란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이들에게는 주어지기 힘든 것이

56) 헤테로토피아는 푸코가 유토피아와의 유비(類比)를 위해 만들어낸 단어로, 『말과 사물』의 서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미셸 푸코·이광래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1987, p.14 참조.

57) 정병언, 앞의 논문, pp.133-134 참조.

58) 장세룡, 『헤테로토피아 : (탈)근대 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 『대구사학』 95, 대구사학회, 2009, pp.301-307 참조.

59) 푸코는 「타자의 공간」이라는 글에서 우리 현실의 모든 고착화된 배치-국가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배치에 저항하고 위반함으로써 구멍을 내는, ‘다른’ 배치의 가능성을 ‘헤테로토피아’라고 불렀다. 그런데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어떤 구체적인 장소, ‘실현된’ 이상향으로서는 찾을 길이 없다. 그것은 현실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엮고 ‘새로이 판을 짜는’ 거대 서사의 후손이 아닌 탓이다. 차라리 그것은 고착된 배치를 교란하고 불안하게 함으로써 다른 배치로 이행하도록 추동하는 탈영토피아의 능력을 뜻한다. 국가와 자본에 맞서 일대일로 ‘맞짱을 뜨는’ 거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현실의 균열을 뚫고 나와 그 배치를 비틀거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게릴라적인 힘, 두터지의 전략이 바로 헤테로토피아의 능력이다. 최진석, 앞의 글, p.238.

며, 현실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취미공의 존재는 그 자체로 외부 공간의 진화적 권력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녀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남성이 추구하는 휴식과 행복은 여성의 희생과 봉사를 담보로 하는 것⁶⁰⁾이기에, 그 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공간의 탐색은 남성 중심적 구조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의 행위와 사건은 광무제로 표상되는 외부 공간의 규범과 질서에 의문을 던지고 그것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취미공은 그녀들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은 아니지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취미공을 통해 저항과 탈주의 의지를 내장한 그녀들은 이제 어디서든 예전의 그녀들은 아니다.

<취미삼선록>은 무양공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곽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조강지처 곽후에 대한 인정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불행해진 이들의 상처를 외면한 남성 광무제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음후의 조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광무제와의 화해를 이룸으로써 남성이 단순히 여성의 적대자만은 아니며, 여성이 여성의 적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공은 그녀들만의 공동체이면서 그녀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조화로운, 우리만이 아닌 타인과 함께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준비하는

60)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공간을 ‘안과 밖’으로 분류하며, ‘안’을 따뜻하고 보호되는 내밀의 공간으로, ‘밖’을 위험과 무방비의 적대적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내적 공간인 집을 보호와 휴식과 행복의 원형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하지만 보호와 휴식과 행복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거저 체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만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여성인 반면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은 남성이다. 다시 말해 집은 남성에게는 보호와 휴식과 행복의 장소지만 여성에게는 재생산노동(가사노동, 육아, 성관계 등)을 반복하는 노동공간, 결코 보호와 휴식과 행복을 체험할 수 없는 공간이다. 송명희, 『여성과 공간-현상학적 공간이론과 젠더정치학-』,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pp.21-22.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주들의 취미궁 생활은 작품 중반부터 시작되지만 취미궁은 <취미삼선록> 서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미삼선록>의 공간은 소재나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밀착되어 있다. 취미궁은 동시대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여성공간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공간이다.⁶¹⁾ 취미궁이라는 새로운 여성공간의 탄생을 통해 <취미삼선록>은 18세기 고전소설사에 자신의 족적을 뚜렷이 남기는 작품이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61) 취미궁의 의미는 <취미삼선록>보다 선행하여 <옥환기봉>에서 파생된 <도행>의 여성공간과 비교했을 때 더 잘 드러난다. <도행>의 정위주는 주원성과의 정혼이 파기되자 속세를 떠나 봉래산 도원동 행화촌으로 들어간다. '정렬당(貞烈堂)'이라 이름 붙인 곳에 기거하며 주원성을 위해 수절한다. 그러다가 영평공주가 자신을 찾는 것을 알고는 다시 연화봉 백옥루로 몸을 옮긴다. 그런데 그곳에 불이 나자 정위주는, 보모가 없다는 이유로 당에 내리지 않아 불에 타 죽은 『열녀전』의 백희처럼 불을 피하지 않는다. '당소제 불이 붓트던 당의 느리디 아닛는 네법이 이시니 소성은 비록 친척이나 먼분이 업스니 더 나아가디 못하리이다 …… 소제 당등후여 옥상의 단정이 안찰고 좌우 시네 명족을 잡고 불 피호를 고두익걸흔디 소제 니르디 빅희는 부인이로디 오히려 보피 니르디 아니므로 느리디 아났는니 호물며 나는 처즈의 몸 가의를 어그릇고 사는 거슨 죽음만 굶디 못하니라 호고 난간이 문허디되 소식을 변티 아니터라' (<도행> 권지이, pp.68-69) 그녀에게 예법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예법이란 곧 남성 권력이 여성에게 강요하는 규범에 다름 아니다. 정위주가 기거했던 정렬당과 백옥루는 주위가 마치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낙원이 아니었다. 기존의 억압적 질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다. 반면 정위주의 시비들은 남성과의 혼인을 거부하고 자매를 이루어 지낸다. 정위주와 달리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문학과 풍류를 즐긴다. 취미궁은 <도행>의 여성공간 형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삼공주가 한 공간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은 <옥환기봉>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지만, 현실과 거리를 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도행> 시비들의 공간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공주들과 같이 상층 여성인 정위주의 공간은 삶을 위협하는 억압이 존속하는 공간이고, 하층 여성인 시비들의 공간은 특정 사건이나 공간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자연이며 현실감을 가진 외부 세계와 차단된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취미삼선록>의 공간 인식은 <도행>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여성의식적 측면에서 한발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취미삼선록>은 제목에서부터 ‘소설에서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하는 작품이다. 공주들의 취미궁 요구 및 생활은 <취미삼선록> 서사 진행의 동력이며, 취미궁은 주제가 구현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본고에서는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공간의 두 가지 존재 방식과 의미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취미궁의 독자적인 기능과 공간적 특성 및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취미삼선록>에는 차별적 성격의 두 가지 공간이 존재한다. 서사 전반부에 나타난 무양공주의 시대, 무양궁, 허씨의 침소 등은 남성 권력이 주도적으로 배치된 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부당한 남성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공간이지 여성이 주체가 되어 구축한 공간이 아니다. 머무름이 강요된 이 공간에서 여성들은 규범과 폭력에 순응하고, 가족 갈등은 재생되고 심화된다. 공주들은 남성 권력이 작동하는 억압의 공간에서 벗어나 그녀들만의 공간을 추구한다. 취미궁에 가서 맨 처음 그녀들은 어머니 곱후의 화상을 그린다. 이 사건은 곱후의 명예 회복을 얻어내는 중요한 장치이며, 연쇄적인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진다. 곱후의 명예 회복은 광무제와, 그로부터 상처받은 무양자매, 곱주의 화해의 단서가 된다. 여성연대는 남성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에 대해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로 대응하였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취미궁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취미궁은 가족의 화해를 바탕으로 부녀 갈등과 부부 갈등으로 상처 받은 여성들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광무제는 취미궁에 걸린 곱후의 화상 옆에 자신의 화상을 걸게 함으로써, 딸들로 하여금 부모가 함께하는 화목한 공간을 꿈꿀 수 있게 하였다. 광무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가족의 화해는 그들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기에 이른다. 반면 부부 갈등은 남편들의 구체적인 반성이나 용서 및 화해의 과정을 겪지 못했다. 하지만 취미

궁이라는 여성연대 공간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의 건강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또 다른 방식으로 치유의 기능을 하고 있다.

취미궁이 치유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취미궁의 헤테로토피적 성격과 관련이 깊다. 취미궁은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권력이 배치된 거대 외부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다. 무양 자매가 꿈꾸던 것처럼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유토피아는 아니었지만, 외부 공간의 전횡적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반쯤 열리고 반쯤 닫힌 공간의 특수성은 경계 넘기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취미궁은 안팎 공간의 권력을 재배치하고 인물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동적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무양공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취미삼선록>은 묻혀 있던 곽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냄으로써 부당한 남성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취미궁에서 주체로 거듭난 여성들은 외부 공간의 질서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주체가 된 그녀들이 만들어가는 취미궁은 조화와 포용을 추구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기획한다. <취미삼선록>이 이끌어내고 있는 가족과 여성, 공동체에 대한 선진적인 의식은 취미궁이 서사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취미궁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통해 <취미삼선록>은 18세기 고전소설사에 자신의 족적을 뚜렷이 남기는 작품이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공간에 대한 관심은 곧 그 공간에서 숨 쉬는 인물과 공간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이 우리가 공간을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학 속 공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전소설 속 여성공간에 대한 논의도 점점 축적되고 있다. 고전소설 작품 속 공간에 대한 개별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고전소설 및 인접 장르, 현대문학에 나타난 공간과의 비교 연구가 보태진다면 우리 문학사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바람으로 본고의 한계와 후행 연구의 방향을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취미삼선록> 2권 2책, 천리대 소장본.
<옥환기봉> 30권 15책,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도잉형> 2권 2책,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2. 단행본

- 변성규 편저, 『중국 문화의 이해』, 학문사, 2003, p.442.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pp.236-238.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p.28.
미셸 푸코 · 이광래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1987, p.14.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p.96-97.

3. 논문

-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pp.1-105.
_____, 「'중남산 취미궁'의 체험 양상과 그 의미-『구운몽』과 『취미삼선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pp.209-229.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pp.1-201.
소인호, 「<취미삼선록>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pp.171-194.
_____, 「<취미삼선록>의 이본적 특성과 축약 양상」,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pp.504.
_____,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집, 우리어문학회, 2009, pp.136-139.
송명희, 「여성과 공간-현상학적 공간이론과 젠더정치학-」,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pp.21-22.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 p.284.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 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

- 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13권 1호 통권 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187.
- 이상화,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 차이의 존재론과 공간성의 사유』, 『한국여성철학』 제4권, 한국여성철학회, 2004, p.89.
-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제6호, 국문학회, 태학사, 2001, pp.161-166.
- _____,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 : <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제10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pp.373-397.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p.73.
-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 : <옥환기봉> ·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0집, 월인, 2006. 12, pp.351-377.
- 장세룡, 『헤테로토피아 : (탈)근대 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 『대구사학』 95, 대구사학회, 2009, pp.301-307.
-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pp.226-227.
- 장효현, 『취미삼선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91, pp.705-706.
-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현몽쌍의록> · <현몽쌍통기> · <몽옥쌍봉연록> · <쌍천기봉> · <취미삼선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 한국고소설학회, 1999, pp.84-95.
- 정병연, 『저항적 여성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마샤 노먼의 Getting Out』, 『현대영미드라마』 20,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07, pp.133-139.
-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 현실』 75, 한국역사연구회, 2010, pp.95-120.
- 최진석, 『근대의 공간, 혹은 공간의 근대』,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pp.238.
- 하상희, 『기혼 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자존감 및 부부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 pp.1-4.
- 한길연,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6, pp.349-382.
- _____,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pp.149-185.

Abstract

The Functions and Meanings of Women's Spaces
in *Chuimisamseonrok*

Park, Eun-Jeong

There are two kinds of spaces represent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Chuimisamseonrok*. First, such places like Princess Muyang's in-laws' house, Muyang Palace, and Mrs. Heo's bedroom, show the space dominated by men's authority. In these places, women comply with the rules and physical forces, and th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reoccur and deepen. On the other hand, Chuimi Palace represents the space established by women's own initiative with women's solidarity. Princesses draw the portrait of Empress Kwak, their mother, and this leads to family reconciliation.

Chuimi Palace works as a healing center for women hurt by family conflicts. The conflicts between father and daughter are directly healed through the change of Emperor Kwangmu. Though the conflicts between husbands and wives do not induce husbands' apologies in the end, women find another healing solution in the space of women's solidarity with communication and sympathy. The reason that Chuimi Palace can function as a healing center is deeply related to Chuimi Palace's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 The uniqueness of the half-open and half-closed space makes it possible to step over the boundary. Thus, Chuimi Palace becomes a dynamic space that rearranges inner and outer authorities, and that changes the characters. The pioneering consciousness on family, woman, and community described in *Chuimisamseonrok* is a result of Chuimi Palace's role as the core dynamic force in the story.

Key-words : *Chuimisamseonrok*, Women's spaces, Chuimi Palace, authority, women's solidarity, family, conflicts, reconciliation, healing, communication, sympathy, Heterotopia

박은정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주소 : (712-110) 경북 경산시 정평동 LIG 1단지 101동 904호

전화번호 : 010-6527-4483

전자우편 : blueye4483@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